

주민참여에 의한 문화·역사 마을가꾸기의 현황과 과제

—충주 목계 문화·역사마을을 중심으로—

State and Subject of the 'Recreating Cultural and Traditional Village' by the Inhabitants Participation

— Focused on the Chungju Mokge Village —

김 승 근*

Kim, Seung-Geun

Abstract

This research is arranged that process and progress facts of 'recreating cultural and traditional village' by the inhabitants participation that in the process during devised a planning of Chungju Mokge village the beginning in 2007. Also it is an investigation that process 'recreating cultural and traditional village' by the themselves through consideration and volition of inhabitants since the beginning stage to devised planning.

The result of study are following; First, the inhabitants training inspired knowledge for this project and opened the eyes that themselves can sea it. According to it be foundation that inhabitants to bring their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project in progress process. Second, The project were able to maintain transparency of public finance that by common and open of all cooperation process of inhabitants, administration supporter and specialist. And this is an important role about bring positive participation of inhabitants. Finally, the project 'recreating cultural and traditional village' promotion with support of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owever this project existing the limits of the budget supporting. The limits are bigger than other rural projects.

키워드 : 문화, 역사, 마을 가꾸기, 주민 참여

Keywords : Culture, History, Recreating Village, Inhabitants Participa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5천년 민족문화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우리 삶의 터전인 마을의 문화를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속가능한 마을로 가꾸고, 마을의 문화·역사적 소재를 발굴·육성, 관광자원화 하여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소득증대와 정주민족도를 높이하고자 2002년부터 9개도 13개 마을을 조성하여 문화·역사 마을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¹⁾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은 타 농촌관련 정책과 마찬가지로 관주도의 하향식 정책이 아닌 지역주민과 민간 단체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사업이 추진된다. 이러한 주민참여에 의한 상향식 계획은 모든 분야에서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 인지되어 있고, 주요한 실천적 사항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진행하기에는 아직 전문가, 행정지원가, 마을주민 모두의 준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까지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어 오면서 주민참여를 통한 과정에 관심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높아진 관심만큼 주민참여의 기준과 평가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많은 마을들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는 주민참여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이 종결되고 마을 스스로 자생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는 주민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마을만들기에 실패한 사례로 남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핵심 주체인 주민들의 참여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결과로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시작된 충주 목계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사업의 계획수립과정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만들기의 필수 조건인 주민교육을 통한 참여유도 과정을 고찰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현황을 토대로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원인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여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5년(2004-2009)동안 1개도 30억 원의 예산이

* 정희원, 극동정보대학 건축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1) <http://maeul.kccf.or.kr> 문화·역사 마을가꾸기의 사업목표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소요되며 전국 9개도 13개 마을에 조성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인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사업 중 충청북도 충주 목계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마을가꾸기의 시작단계인 기본계획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 가꾸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을 통해 제시되는 세부적인 항목을 파악하였다. 둘째, 지속적인 주민 주도적 마을가꾸기를 위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찰함으로써 마을 주민들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사업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주민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마을가꾸기의 방향을 제시했다.

2.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사업의 검토

2.1 문화·역사 마을가꾸기의 개요²⁾

200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를 근거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특징은 문화역사 및 건축 등 민간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앙 및 지방의 행정조직, 지방 문화원, 마을주민 상호간의 통치에 바탕을 둔 사업 추진체계와 조직별 역할 분담으로 추진된다. 그리고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통합지침 제공 및 관계자간의 워크숍, 포럼, 연석회의 등을 통해 지역간 정보의 공유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공동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일률적인 개발 및 물량 위주의 마을정비 사업을 지양하고 마을의 문화역사자원을 발굴하여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만족도를 개선하고자 시범마을(1도 1-2마을)을 조성하여 향후 농산어촌 마을의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9개도에 각1-2개 마을을 조성하는데 보조금의 50%는 지방분담에 따른 조건부 지원을 하고 있다.³⁾ 또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물량 위주의 건축 및 마을정비사업, 소액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마을의 문화역사적 자원의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으로 주민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거시적인 효과를 위한 집중투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추진주체 및 각 지역 사업주체별로 사업 초기부터 민간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또한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주축으로 문화역사, 관광, 건축, 환경, 행정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심의위원회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을 주

축으로 지역의 분야별 전문가 및 심의위원회 통한 추천 전문가로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2 문화·역사 마을가꾸기의 현황

문화·역사 마을가꾸기는 1차(2002)~3차(2005-현재)로 구분하여 진행⁴⁾하였는데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된 마을은 안동의 군자마을 뿐이며, 나머지 12개 마을은 실시설계 및 프로그램 운영, 환경조성공사 등이 진행 중이다. 문화·역사 마을만들기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표1>⁵⁾과 같다. 한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의 문화·역사자원은 크게 유형과 무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문화·역사자원을 중심으로 각각 활용 가능한 환경자원, 인적자원, 생활문화자원 등으로 특성화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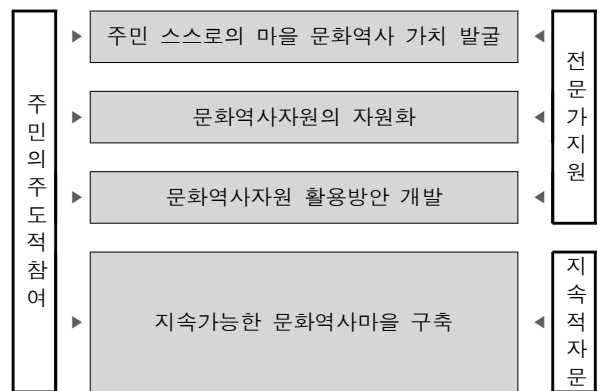


그림 1.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의 기본개념

3. 충주 목계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와 주민참여

3.1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만들기 추진과정

현재 목계는 과거의 번성하였던 흔적만 남아 있다⁶⁾. 그러나 목계는 포구와 장시, 소금창고, 연초수남장, 정미소, 마방, 권변과 같은 조선 시대로부터 일제 강점기, 그리고 한국 근대에 걸친 역사와 문화가 배어있는 곳이다. 이러한 과거의 번성과 영화를 되살리기는 어려우나, 목계

- 4) 총 21개 마을 중 2개 마을의 사업이 취소되었고, 2개 마을의 사업은 중단되었다.
- 5)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사업현황은 이종인, 문화역사마을만들기 사업백서(2002-2004), 전국문화원연합회, 2005. 4를 참고하여, 3단계 사업을 추가하여 정리한 것이다.
- 6) 충주 목계는 충청좌도의 가장 큰 고을인 충주가 있고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일대의 세곡을 모아두는 가흥 창지가 인근에 있었다. 세곡의 수확과 보관을 위해서 각지에서 싣고 오는 물품들을 내리거나 한양으로 떠나는 세곡선에 선적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곳이 목계와 같은 나무터 취락이다. 또한 목계는 강원도로 통하는 길목으로 각 지역을 연결하는 목이라는 천혜의 지리적 조건과 함께 다양한 문화의 집결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물류의 중심은 다양한 상업의 발달과 관련 건축물, 풍속, 놀이와 같은 서민적 문화가 동반하여 부흥하였었다. (주석내용출처 : 한국농촌건축학회, 충주 목계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기본계획연구보고서, p.p. 7, 2008. 3. 인용)

2) <http://maeul.kccf.or.kr> 문화·역사 마을가꾸기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3) 1개 마을당 보조금(20억원)에 대한 지방비 50%(10억원)을 분담한다.

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찾아 잊혀져가고 있는 문화와 의 단계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현황조사 단계에서는 마을

표 1.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현황

단계	사업명	소재지	사업기간	참여주체				완료 후 지 여 부
				주민	지역 조직	행정	기타	
1차 년도 (2002)	합천 밤마리 오광대 발상지 마을	경남 합천군 덕곡면	02. 12-05. 4	○	○	○		×
	해남 패총마을 군곡리 문화역사마을	전남 해남군 송지면	-	사업중단				
	장수 산촌의 전통적 생활문화보존마을	전북 장수군 번암면 논곡리	02. 12-04. 6					×
	태안반도의 역사 소금마을	충남 태안군 근흥면	02. 12-05. 4	○	○			×
2차 년도 (2003)	고양 행주나루마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	-	사업취소				
	서귀포 법환 잠녀마을	제주도 서귀포시 대륜동 법환마을	03. 10-05. 12	○	○			○
	공주 봉현 농경문화마을	충남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	03. 10-04. 12		○			×
	도봉 도봉산 서원마을	서울 도봉구 도봉1동	03. 10-04. 12		○			×
	안동 선비문화의 전통 군사마을	경북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03. 10-05. 12		○			○
	북제주 1만8천신들의 분향 송당마을	제주도 북제주군 송당리	03. 10-04. 12		○			×
	여주 싸리산 오금리 도예마을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오금리	03. 10-04. 12		○			×
	거제 수산 별신굿마을	경남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03. 10-04. 12	○	○		○	×
	서산 탐곡리 박첨지놀이마을	충남 서산시 음암면 탐곡리	03. 10-05. 4	○	○		○	×
	진도 벽파진의 벽파정마을	전남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	-	사업취소				
	강진 사당리 청자마을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03. 10-04. 12		○			×
	영광 옛 돌담길의 효동마을	전남 영광군 묘량면 삼효리	03. 10-05. 12		○			○
	수원 화성 24반 무예마을	경기도 수원시 남향동	03. 10-04. 12		○			×
	고령 달맞이 문화역사마을	경북 고령군 쌍림면 월남리	03. 10-04. 12		○			×
	영암 모산 역사마을	전남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03. 10-04. 12	○	○			×
	양평 산음리 산촌마을	경기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	사업중단				
	3차 년도 (2005~ 현재)	춘천 의병 역사마을	강원 춘천시 남면 가정리	03. 10-05. 4		○		
안동 군자마을		경북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03. 10-05. 12	○	○	○	○	○
서귀포 법환 잠녀마을		제주도 서귀포시 대륜동 법환마을	03. 10-05. 12	○	○	○	○	○
영광 옛 돌담길의 효동마을		전남 영광군 묘량면 삼효리	03. 10-05. 12	○	○	○	○	○
원주 회촌 문화·역사마을		강원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05. 12-08. 12	○	○	○	○	○
강릉 학산 문화·역사마을		강원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05. 12-08. 12	○	○	○	○	○
서천 동자복 문화·역사마을		충남 서천군 한산면 동산리	05. 12-08. 12	○	○	○	○	○
통영 문어포 문화·역사마을		경남 통영시 한산면 두역리	05. 12-08. 12	○	○	○	○	○
고창 사등 문화·역사마을		전북 고창군 심원면 월산리	06. 6-09. 6	○	○	○	○	○
의령 입산 문화·역사마을		경남 의령군 부림면 입산리	06. 6-09. 6	○	○	○	○	○
정읍 원촌 문화·역사마을		전북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06. 6-09. 6	○	○	○	○	○
충주 목계 문화·역사마을		충북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07. 3-09. 12	○	○	○	○	○
진천 보련 문화·역사마을		충북 진천군 진천읍 연곡리	07. 3-09. 12	○	○	○	○	○
안성 덕봉 문화·역사마을		경기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	07. 6-09. 12	○	○	○	○	○

역사를 마을 주민과 외부 방문객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문화·역사마을로 만들고 가꾸어 가고 이를 위해 계획 초기부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의 물리적 환경개선, 주민의 다각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마을 활성화계획으로 목계마을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목계마을과 같은 여건을 가진 마을가꾸기 선진사례를 찾고, 문헌을 조사하여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가꾸기 활동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문화·역사 자원 발굴, 체험 프로그램 개발, 조직 구상, 공간 구축 등 마을가꾸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참여에 대한 원칙과 역할을 정해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마을가꾸기는 주민들의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참여가 그 성패를 가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주민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 마을가꾸기의 특성상 단시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실행하고 점검하며, 추진되도록 하였다.

마을가꾸기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한 후 현황조사를 통해 분석하여 기본구상을 설정하며 기본계획 및 공간계획

의 인문·사회·자연·환경을 조사하고 주민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마을자원의 잠재력과 가치를 분석하였다. 발굴된 자원으로 마을 활성화 계획과 마을 환경정비를 구상하였으며 분야별 세부계획과 공간계획을 발전시켰다.<그림2. 마을가꾸기 단계' 참조>

사업의 초기단계인 2007년 5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완료시점인 2008년 1월까지의 추진과정과 참여 조직 간의 관계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3.2 주민이 찾아낸 마을의 자원분석 및 자원화 방안

1) 마을자원 분석

마을현황조사, 주민인터뷰, 설문조사, 주민회의, 공청회를 통하여 마을의 자원 찾기가 진행되었으며 진행과정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하여 발굴된 자원은 크게 문화·역사자원, 자연자원, 인적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문화·역사자원

문화·역사자원은 현재 공간적으로 소멸되었지만 나무와 관련된 문화·역사자원들은 마을의 주요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고, 목계와 인근지역의 업연초를 수납하였던

업연초수납장은 지역의 경제와 목계동의 발전에 깊은 연계를 갖고 있으며 수납장의 상징적인 요소가 그대로 전

감싸고 있는 봉제산, 설매산, 제내편봉은 목계의 역사와 함께 근대사에서 많은 역사적 사건과 이야기를 담고 있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운영주체	전문가 주도의 주민조직 구성	주민주도(전문가 자문, 보조)	주민주체의 기획과 운영 (지속적인 전문가 자문단, 위원회 활용)
운영내용	주민조직 구성과 교육 주민역량강화교육	주민조직 정비 보완 주민 자체교육 및 프로그램 자체 보완 (역량강화) 체험프로그램의 실시	체험 프로그램 1차 실시에 따른 미비점 보완 주민주체조직 재구성 자체 프로그램 추가 안정적 프로그램 실시
체험테마	테마 구축 및 프로그램 구축 가능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3가지 채우기 개념의 프로그램 완료	3가지 채우기 개념 체험 프로그램 실험적 실시	4계절 체험 프로그램 실시 목계 라이브뮤지엄 운영 3F 테마체험 프로그램의 완성
프로그램	테마에 따른 프로그램 구축 문화역사체험 관련 프로그램 먹거리 관련 프로그램 수공예 관련 프로그램	봄, 여름, 가을, 테마 프로그램 (실험적 실시) 프로그램의 단계적 실시	4계절 테마 프로그램 운영 기존테마에 추가 프로그램 도입, 부실 프로그램 정리 3가지 채우기 프로그램 정규 가동
공간구성	기존 마을회관, 강변, 복지관(마을 공간계획 활용) 초등학교, 공간의 활용 계획	수납장 공간 구성 새틀라이트(3개소) 전시장(네트워크에 포함됨) 복지관 포함 마을 경관 네트워크에 따른 정비 체험로(산행) 강변체험코스	4개 새틀라이트 공간구성 완료 근대문화 거리조성 공간계획 (목계포구, 새장터, 문화역사 체험관) 목계 살아있는 박물관 장기계획에 따른 공간계획

그림 2. 마을가꾸기 단계

해오고 있다. 또한, 목계의 주요행사인 별신제와 줄다리
기, 강신, 영신, 송신굿 등의 민속 문화 요소 등 다양한
문화·역사자원이 존재하는 강점을 체험프로그램과 연계
하여 문화·역사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통해
주민의 생활과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
하였다.

② 자연자원

목계에는 배산임수의 수려한 자연자원이 목계마을을
감싸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자원들은 목계의 역사적 사건
과 포구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그 흔적들이 곳곳에 스며
있다. 따라서 이것을 자연을 느끼며 목계의 문화·역사와
자연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목계나루와 장터는 공간적으로 재현이 불가능하지만 목
계강변과 강은 현재도 과거 목계의 영화를 추억하여 줄
다리기 행사가 매년 개최되고 있는 곳이다. 또한, 목계를

다.

③ 인적자원

마을의 인적자원으로는 먼저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등을 기록한 개인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었다. 그리고
목계 전통문화보존회가 조직되어 목계의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고자 활동 중에 있으며, 보존회를 중심으로 각종
마을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고고
유물복원전문가는 유물과 관련하여 문화재 복원을 통해
목계의 전통 민속놀이와 관련된 많은 자료와 고증, 재현
과 복원을 위해 상당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전통한선
제작 기술보유자, 전통 민속놀이 기술보유자, 노동요 전
수자 등 전통문화보유자들은 목계와 함께 생활하며 전통
자원을 재현하고 알리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들 인적자원의 활용은 각종 자원의 고증, 재현과 복원,
마을가꾸기에 대한 지원 등으로 사업의 중심적 역할과

표 2. 주민과 함께 찾아낸 마을의 자원 현황과 자원화 방안

자원의 유형	자원 현황	자원화 방안
문화·역사자원	목계나루 (중부지역 중산간지역 농산물 수송, 소금배), 연초 수납 장, 부흥당(부흥사), 방단탑, 목계 민속축제행사 (강신, 영신, 농 신굿), 줄다리기, 남사당 놀이, 정미소, 한선제작소, 선유놀이, 목공예, 고고유물연구소, 수석공예, 제머리마빰이, 근대문화역사 거리, 업정초등학교 목계분교, 신경립 시비, 브라스 밴드	•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을의 문화·역사 자원의 중요성 인식과 주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가치 인식, 소득자원으로의 연계
자연자원	남한강(목계강변), 봉제산, 설매산, 제내편봉, 약수터, 느티나무, 마을안길의 나무군락, 강변 휴양림, 밤나무 군락, 뒷밭, 두무소	• 목계의 역사와 함께 자연에 대한 이야기와 흔적들이 스며 있으므로 자연을 느끼며 문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가능
인적자원	목계 전통문화보존회, 고고유물복원전문가, 전통한선제작 기술 보유자, 전통민속놀이 기술보유자, 노동요 전수자, 향토음식 전 문가, 수석공예 전문가	• 각종 자원의 고증, 재현과 복원, 마을가꾸기 에 대한 지원 등으로 사업의 중심적 역할과 체 험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가능

체험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자원화방안

<표3>과 같이 목계가 가지고 있는 문화·역사자원, 자연자원, 인적자원은 계절별(시기별), 연령별, 대상별로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① 문화·역사자원의 자원화 방안

목계포구(세곡선, 소금배, 목재 수송)는 사계절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목계나루터의 공간적 상징성을 고려한 동계와 서계의 중심에 목계문화역사 전시실을 조성하여 사진자료, 근대문화역사 관련물품을 전시할 수 있다. 담배수납장은 근대문화와 목계동의 깊은 연계를 갖고 있던 곳으로 엽연초 수납실을 재현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행사와 연계한다며 다채로운 공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목계의 줄다리기는 줄꼬기, 줄다리기로 체험프로그램화 할 수 있다. 선유놀이 또한 사계절 가능한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어린이 문화·역사 학교와 관련된 전통 불꽃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② 자연자원의 자원화 방안

봉수산, 설매산, 제내편봉을 이용하여 봉수대의 재현과 같은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설매산과 연계된 숲길(소나무군락)의 산행코스를 개발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 또한 강변의 휴양림은 숲을 이용한 자연체험 코스로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밤나무 군락을 이용하여 가을철 밤 즐기기 행사 체험과 연계할 수 있다.

③ 인적자원의 자원화 방안

목계 전통문화보존회를 중심으로 고고유물복원전문가, 전통한선제작 기술보유자, 전통 민속놀이 기술보유자 등 마을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자원의 고증, 복원, 재현 등 매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적극적인 의견제시

어린이 역사학교

목공예 체험

그네 만들기

그림 3. 모두가 함께 찾아내는 마을의 자원

3.3 주민참여를 통한 계획수립

1) 주민참여와 조직구성

대부분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초기 단계에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주민들의 몫이다. 주민조직의 구축과 역량강화를 통한 역할 세분화, 역할 분담과 주민 대표모임의 활성화가 절대적 필요하다.

표 3. 기존의 목계마을 주민조직

분류	조직명	모임 횟수	활동내용
문화	목계 전통문화 보존회	6회	목계 전통문화 계승보존
마을 발전	청년회	12회	마을공동체 유지
	출향인사회	유동	기금조성
친목	대동계, 수석회 부녀회, 노인회	1회	마을주민화합, 농사부조, 애경사부조
영농	농계	6회	농업소득관련 정보교류 작목반 구성

목계 문화·역사 마을가꾸기에 대한 이해와 함께 목계에 존재하는 문화·역사·자연·인적자원에 대한 가치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한 주민들의 참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주민각자의 역할을 파악하고, 스스로 목계 문화역사자원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에 변화가 주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마을가꾸기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조직들의 성격과 특성을 파악하여 마을가꾸기의 조직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였다.

마을가꾸기에 적합한 주민조직은 기존의 주민조직과 연계성을 갖고 마을의 특성을 파악하여 리더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마을가꾸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구성된 주민조직은 마을가꾸기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견제안 및 결정의 주체가 된다.

2) 주민교육과 역량강화

목계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회의를 통한 자체주민조직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구축될 마을 조직과 공동체 마을회의를 위한 안건의 합리적인 처리와 운영에 대한 역량강화를 실시한다. 또한 선진지 답사를 통해 마을의 성격과 체험프로그램이 유사한 마을을 견학함으로써 활력을 심어줄 수 있다. 목계마을은 <표5>와 같이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특강을 실시하여 직접 견학하지 못한 선진지의 경우 간접체험을 할 수 있는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역량강화를 모색하였다. 선진지 견학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이질감을 느끼게 하거나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발

생활 수 있음을 유념해서 결정해야 한다.

표 4. 목계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관련 회의

회의일자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회의
2007. 5. 16	목계전통문화보존회 - 마을의 발전관련 회의
2007. 5. 26	목계마을임원회의 - 마을가꾸기 협조 관련
2007. 6. 9	마을전체주민회의 - 마을가꾸기 사업의 이해
2007. 8. 6	2구 임원회의 - 마을공동체조직 규약 협의
2007. 8. 17	1구 임원회의 - 마을공동체조직 규약 협의

표 5. 목계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추진과정과 조직간 관계

날짜 조직관계	2007. 5	6	7	8	9	10	11	12	2008. 1
주민-마을 가꾸기 전문가	· 마을현황 조사 · 마을공간 배치도 작업 · 주민과 개별면담	· 인문사회 조사 · 주민간담회 · 설문조사 · 동영상 제작 (1차)	· 선진 사례 소개	· 목계 옛길찾기 · 동영상 제작 (2차)	· 줄꼬기 행사진행	· 근대건축물 실측조사 · 주민간담회	· 수석, 목공예 동영상 제작 (3차)	·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기본 계획 수립	· 대보름 행사 (탈집 태우기)
문화원-마을가꾸기 전문가	· 사업 취지설명	· 문화원 자료수집			· 줄다리기 행사준비	· 줄다리기 행사 모니터링 · 주민자 체 프로그램 가능성 조사			
MA-전문가	· 2주마다 정기모임을 통해 목계 문화·역사마을가꾸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의견 나누며 주민의견 전달								
문화원-MA	· 목계 추진위원회를 통한 목계 문화·역사마을가꾸기 기본계획 점검 및 평가								
마을가꾸기 전문가-지역전문가	· 전문위원과 긴밀한 연락 및 의견 수렴을 통한 계획 진행								
문화원-지역전문가	· 간담회 및 의견수렴 등								

* 동영상은 1차-3차까지 제작되었으며, 이것은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활용되었음.

4. 목계 살아있는 박물관 프로그램 제안

4.1 프로그램 기본구상 및 개념

문화·역사마을 가꾸기는 도농교류와 지역자원의 보존, 역사와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각 마을의 특성을 바탕으로 문화·역사가 살아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마을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은 그 지역 고유 자원을 도시민들과 공유하여 문화·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근대 건축물, 옛 길, 근대문화거리 경관과 같은 역사자원이 있는 지역에서 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역사자원을 체험하고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며, 도시와 농촌이 상호 교류하여 전문가와 행정지원자가 관여하지 않아도 마을 스스로 지속가능한 문화·역사마을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과 함께 찾아낸 마을자원을 바탕으로 목계의 문화와 역사적 자원의 발굴하고 그 가치를 인식하여, 목계의 문화역사,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인적자원의 개발, 마을지도자양성을 통한 마

을자원의 활용과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목계 살아있는 박물관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목계 근대 문화역사 자원의 발굴보존과 활용방안 모색을 통한 주민 소득증가의 기반을 조성하고 둘째, 주민생활공간과 문화역사 체험공간의 공유를 통한 주민 생활공간으로서 마을가꾸기의 운영과 마을 소득사업화를 추진하며 셋째,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도농교류확대와 지속가능한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사업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마을 발전을 주도할 다수의 지도자 육성과 주

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화·역사 마을가꾸기와 수익사업을 함께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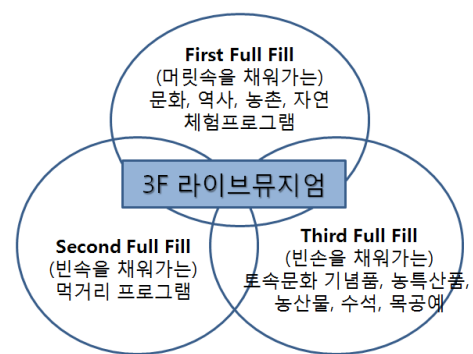


그림 4. 목계 살아있는 박물관 프로그램 제안

4.2 머릿속을 채워가는 프로그램 (First Full Fill)

첫 번째, 문화·역사자원을 느끼고 경험하는 체험프로그램은 목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로 목계 전체를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만들어 문화·역사·자연으로 네트워크화 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세부 항목으로는 목계역사 듣고 느

끼기, 목계문화 찾아보기, 목계줄다리기 관련문화, 목계문화역사 유적 보고 느끼기, 목계 문화역사 학교 수업 프로그램, 목계의 역사를 자연과 함께하며 느끼기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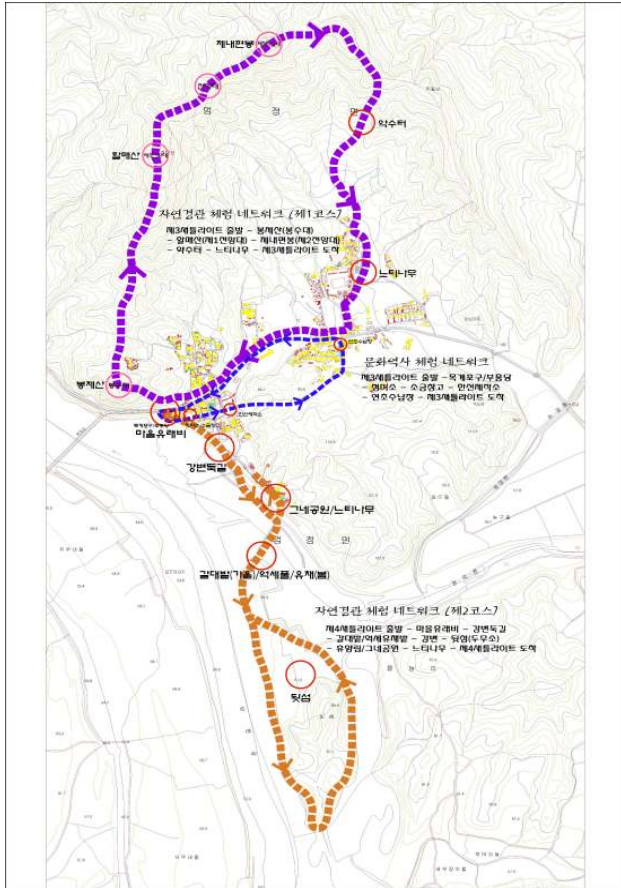


그림 5. 첫 번째 채우기 네트워크 구성 개념도 (전문가, 마을주민, 추진위원회 중심)

4.3 빈속을 채워가는 프로그램(Second Full Fill)

두 번째, 향토음식에 대한 먹거리 프로그램은 목계가 갖고 있는 전통 향토음식을 느낄 수 있는 향토시골 밥상, 목계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음식과 토속 음식을 이용한 전통 토속음식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네트워크화 하였다.



그림 6. 두 번째 채우기 - 먹거리 체험(부녀회 중심)

프로그램의 세부 항목으로는 시골밥상 재료 구하기,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채취하여 음식 맛내기 프로그램 연

계, 목계강에서 나오는 참메자음식 연계, 목계 특산물인 갖채에 대한 음식개발 등이다.

4.4 빈손을 채워가는 프로그램(Third Full Fill)

세 번째, 공예품과 농산물 등을 교류하여 방문객들로 하여금 빈손을 채워가기 위해 목계의 각종 공예품, 기념품 등을 상품화하고 목계 농특산물의 직거래와 별신제, 줄다리기와 관련된 문화를 상품화하였다. 또한, 이들 프로그램들은 공간계획을 통하여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화 하였다. 프로그램의 세부 항목은 목공예체험, 수석공예 제작체험, 수석 감상하기, 별신굿 관련 공예품,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이 있다.



그림 7. 세 번째 채우기 - 공예품 / 농특산물 체험 네트워크 (마을의 기능보유자 및 농계 중심)

4.5 소결

이번 사업을 통해 목계에는 구체적인 조직이 형성되었고, 그 조직들은 사업이 끝난 후 마을이 스스로 자생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녀회, 청년회, 대동계, 노인회, 농계, 수석회로 세분화된 조직은 목계문화보존회, 목계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것은 목계 문화·역사 마을가꾸기의 실질적인 주민조직으로써 목계 살아있는 박물관을 위한 세 가지 채우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역할의 부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역할의 부여는 머릿속을 채워가는 프로그램(문화·역사체험, 자연체험), 그리고 빈속을 채워가는 프로그램(전통·민속요리, 특산품 요리, 계절 요리), 또한 빈손을 채워가는 프로그램(목공예 체험, 석공예 체험, 농산물

체험)을 세분화하여 진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써 목계 문화·역사 마을가꾸기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목계가 스스로 자생하여 지속가능한 마을이 될 수 있는 미래지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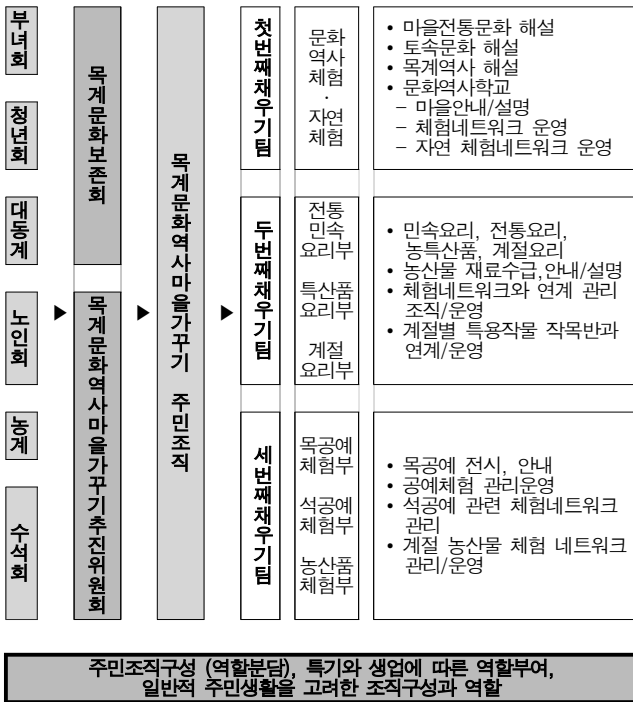


그림 8. 목계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주민조직과 체험프로그램의 연계구상도

5. 결론

지역의 문화·역사 자원을 발굴하여 보존하기 위해 시작된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사업은 문화자원과 역사자원이 존재하는 마을, 발굴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 또한 모든 마을만들기 사업이 겪고 있는 문제로 첫째, 마을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의 시급함과 둘째,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험과 안목을 갖도록 유도하여 인식을 전환토록 하는 것과 셋째, 인구의 자연감소 및 유출로 인해 장기적인 인재육성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시작된 목계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기본계획연구를 진행하면서 첫째, 주민교육을 통한 역량강화가 사업의 지속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주민교육을 통해 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을 고취시키고 안목을 신장시켜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꾸준한 주민교육은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해 주었으며 주민이 사업의 주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어 주민들 스스로 하고자하는 의욕을 심어 주었다. 둘째, 주민과 행정지원가, 전문가의 모든 협력과정을 공유

하고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고, 이것은 적극적인 주민조직의 구성과 역할분담,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에 따른 연계성까지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였으며, 문제의 소지를 내재하고 있는 재정의 투명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결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문화·역사 마을가꾸기는 마을에서 스스로 사업을 해 보고자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계획이나 개발에 따른 예산적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향후 사업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며 결국 이러한 문제로 인해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주민참여와 활동의 형태, 참여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사업추진기관은 가시적인 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계획수립에 의한 추진과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극동정보대학 도시·건축연구실, 대원리 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서, 희망을 꿈꾸는 대원리, 2007. 8.
2. 김강섭 외,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2권 2호, 2006. 2.
3. 김승근 외, 주민이 참여하는 농촌마을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제5권 2호, 2003. 6.
4. Nakano Hiroshi, 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사례,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제38권 3호, 2001. 6.
5. 오내원 외, 농가계층별 소득증대 방안-농외소득 증대의 방향과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6. Yoshihiro Kanie, 관광개발을 핵으로 한 마을개발과 주민의 조직적 활동,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권 1호, 1999. 2.
7. 이동균 외,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참여조직의 관계구도와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2006. 4.
8. 이종인, 문화역사마을만들기 사업백서(2002-2004), 전국문화원연합회, 2005. 4.
9. 조영국, 주민주도 주민참여형 농촌발전방안들의 허구, KREI-포럼, 농촌관광&마을가꾸기, 2003.
10. 한국농촌건축학회, 충주 목계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기본계획연구 보고서, 2008. 3.
11.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웹-사이트 <http://maeil.kccf.or.kr>

(接受: 2008.07.10)